

가야산 국립공원 자연휴식년제 일방적 결정

임시 등산로 대장경판전 등 위협

해인사, 극락굴 구간 16일부터 폐쇄 환경부에 전달

가야산 국립공원 등산로 자연휴식년제에 따른 등산로 변경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팔만대장경 판전(국보52호)과 마애불입상(보물 222호) 등의 문화재 보호에 큰 위협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상수원의 오염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해인사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인사주지 현응는 가야산 국립공원 등산로 자연휴식년제에 따라 2003년부터 이용하고 있는 임시등산로인 극락굴 구간을 4월 16일부터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또 가야산 국립공원 등산로에 적용한 자연휴식년제의 변경과 기존 토신굴 등산로의 정비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에 최근 전달했다.

해인사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가 가야산국립공원 중 해인사 소유인 가야산 등산로 토신굴 구간(마애불갈림길에서 토신굴 갈림길까지의 1.9km)을 해인사와 협

의 없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자연휴식년제를 적용함에 따라 해인사와 가까운 극락굴 구간(마애불갈림길에서 마애불을 경유해 토신굴 갈림길까지)이 임시등산로로 이용되면서 문화재 훼손 및 상수원

무속인 출입증가 화재위협

등산객으로 인해 상수 오염

휴식년제 변경 강력히 요청

오염 등의 문제가 야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특히 해인사는 "최근 해인사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2010년까지 5년간 자연휴식년제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등산로 자연휴식년제의 변경을 강력히 요청했다.

문제의 극락굴 구간 등산로는 통일신라 시대에 조성된 마애불입상을 경유하는 코스로 등산객들이 소로를 통해 아무 제약 없이 팔만대장경 판전에 접근할 수 있을 만큼 팔만대장경 판전과 인접해 있어 문화재 보호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또, 극락굴 구간이 주 등산로가 되면서 무속인들의 출입과 불법적인 굿이 자주 행해져 화재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극락굴 위 계곡은 해인사 상수 대동 500여 명과 신도들이 사용하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등산객들의 출입으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해인사는 "극락굴 구간 등산로는 문화재 보호와 상수원보호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등산로보다 약 20여분정도 더러가도록 되어 있어 등산객들에게도 불편을 주는 처사"라며 "2003년에 지정된 자연휴식년제 구간을 완전 폐지하고 토신굴 구간의 등산로를 원상복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법회도 보고 고민도 해결”

동화사, 매월 1일 의료·법률·세무 상담봉사



“양력 초하루 날엔 동화사에서 부처님 가르침도 배우고 의료, 법률, 세무 상담도 받으세요.”

4월 1일 동화사에 특별한 일이 생겼다. 이른 아침부터 봉투서 1층 신도회의실이 한방진료소로 단장하고 각종 의료장비가 실린 진료버스도 도착해 치과가 ‘개원’됐다(사진). 세무 상담소와 법률상담

소도 경내에 문을 열었다. 동화사 신도회(회장 허석규)가 의료 세무 법률 관련 전문인으로 구성된 봉사단을 발족해 이날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배우고 수행을 같이 하는 동화사 신도로서 작은 봉사가 동화사 신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마음을 모았다”는 전문인 봉사단 4인방은 손찬의원 손창수 원장, 김스치과 김석순 대표원장, 최창득 변호사, 나재일 세무사다.

최창득 변호사는 동화사 법률고문으로, 손창수, 김석순 원장, 나재일 세무사는 모두 신도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바쁜 일정 속에 늘 쫓기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매월 1일 열리는 동화사 정기법회 때만큼은 법회에 참석해 법문도 듣고 스님과 불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시간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동화사 신도회 허석규 회장은 “신도들이 불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수행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제18회 총담재 경주서 개최

신라 경덕왕 때의 고승이며 향가 안민가가 ‘찬기파랑가’로 유명한 총담스님을 가리는 차 문화 축제인 ‘총담재’가 4월 2일 칠성대 앞 문화의 거리에서 70여 단체와 관광객 등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행사는 울산불교교육원 석적회의 육법공양과 동국대석림회 종사연방을 시작으로 추모제와, 헌무, 헌화, 다례시연 등으로 이어졌고, 건달바풍물단의 길놀이, 국악실내악단 가람의 국악 공연, 서라벌리드앙상블의 관악공연과 추모제, 일장스님의 禪사화전,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사진전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함께 열렸다.

배지선 기자

대구 정토회관 이전 개원



불교수행공동체 대구정토회(대표 전병득)가 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옛 공덕원 건물로 이전하고 4월 3일 개원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1992년 10여 명의 회원들에 의해 작은 사무실로 출발한 정토회가 개원 14년 만에 자체회관을 마련한 것이다.

대구정토회는 회관개원을 기념해 법륜스님의 ‘반야심경 특강’을 4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설했다. (053) 744-3025 배지선 기자

대구 교사불자연 결성총회

교사불자연결회 대구지부는 4월 1일 노인 중·고등학교 반야전에서 총회를 열고 노인교 교장을 새회장으로 선출했다.

전국교사불자연결회 신연설 회장을 비롯한 대구지역 불자교사 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는 내년 1월 팔공산에서 야생동물 먹이 주기 및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또 금년의 주요 사업으로 12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저녁마다 열리는 금강경 강독법회와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마다 치매노인전문요양원인 여래원에서 갖는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배지선 기자

알림 본지 572호 6면 ‘해인사 원·전제식’ 기사의 사진에서 영명 스님이 누락되었기에 사과드립니다.

현대불교 시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4-634-3429



스님과 신도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해인사 대적광전 앞에서 경판을 머리에 이고 조선 초 팔만대장경을 강화도 선원사에서 해인사로 옮기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해인사, 팔만대장경 수호 정대불사

제46회 해인사 팔만대장경 수호 정대불사가 4월 6일부터 7일까지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에서 봉행됐다.

전국에서 1000여명의 대중에 운집해 봉행된 정대불사는 6일 오후 4시 비석거리에서 영가를 모시는 시련의식을 시작으로 해인율원 울주 종전, 율원장 무관, 해인강원 강주 종주 스님이 법사로 나서는 해인삼매

법문과 영가천도대령, 관육, 팔만대장경 정대요집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7일 오전 8시 대적광전 앞에 쾌불을 봉안한 후 구광루 앞에서 펼쳐진 팔만대장경 정대요집은 스님과 신도들이 경판을 머리에 이고 법성도를 들면서 조선 초 팔만대장경을 강화도 선원사에서 해인사로 옮기던 당시의 모습을 재현했다.

글·사진=배지선 기자

대구경북 봉축행사 준비 분주

대구·김천 15일, 경주 21일, 영천 22일 봉축탑 점등
선덕여왕 승모제 찬불가 경연 등 볼거리 풍성

4월 10일부터 5월 5일까지 한 달 간 이어지는 봉축기간을 맞아 대구경북 지역 불교계가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가르침을 가리는 다채로운 봉축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대구 봉축위는 봉축탑 점등식을 4월 15일 오후 4시 국제보상공원에서 거행하고,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를 4월 30일 오후 4시부터 두류야구장에서 개최한다.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제등행진은 반월당 네거리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대대적인 축제로 회향을 맞을 예정이다. 이밖에 선덕여왕승모제가 선덕여왕승모회(회장 최태환)의 주관으로 4월 12일 오전 10시 부인사에서 거행되며, 전국맹인불자행대회가 16일 오전 10시부터 갖바위에서 열린다.

또, 대구경북불교음악협회가 주관하는 찬불가 합창의 밤이 4월 17일 오후 7시 동구문화회관에서 열린다. 관오사 합창단 지휘자 임익선 선생의 특강회가 18일 오후 7시 동구문화회관에서 열린다. 19일 오후 6

시에는 대구 동구청 봉축등 점등식이, 26일에는 서부경찰서와 서구청의 봉축탑 점등식이 있고, 4월 30일에는 지하철반월당역에서 맑고향기롭게 대구지부의 거리공연이 펼쳐진다.

5월 4일 오후 7시에는 천태종 대성사가 경내에서 봉축축하제를 개최하고 부처님오신날인 5월 5일 오전 12시에는 정병허거사립의 자비광명기원타종식이 경성감영공원에서 거행된다.

김천 지지사에서는 15일 오후 3시부터 EBS다오 한영애의 문화홈페이지 공개방송이 열리고, 같은 날 오후 7시 김천역 앞광장에서 봉축탑 점등식이 거행된다. 또, 29일에는 김천시왕인연합회주최로 연등축제가 펼쳐질 예정이다.

경주 불국사도 21일 저녁 7시 경주역앞광장에서 봉축탑 점등식을 개최하고 23일에는 경내에서 불국사 어린이 그리기 글짓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영천 은해사는 4월 22일 영천 실내체육관에서 암도 스님

을 모시고 봉축탑 점등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또, 고운사는 22일 개산대재를 봉행하고 개산 이후 처음으로 경내에서 산사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정장식 前 포항시장 공식사과

“포항시장 재임 시 본인의 종교편향적 언행으로 인해 지난 2004년 12월 15일 불교대회회를 치르는 고통을 안아야 했던 불교계에 늦게나마 사과를 드립니다.”

정장식 前 포항시장이 4월 3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임기간 종교 편향적 언행으로 불의를 빚은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정장식 前 포항 시장은 ‘한나라당 경북도지사 예비 후보 전 포항시장 정장식’이라고 밝힌 사과말씀을 통해 “공인으로서 타 종교인의 마음에 아픔을 드린 점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불자들의 가슴에 상처가 남아있는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정 전시장의 이날 사과 발표를 두고 지역 종교계에서는 불교인들의 표심을 달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지만 불교계에서는 더 이상 공식자의 종교편향적 언행과 정책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배지선 기자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드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표 이상식 합장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휴대폰 : 011-302-1022 주·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대정빌딩 1층

불교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와 만나는
불교와 문화
2006 0304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제18회 불교진흥원(이사장 총승회)이 불교의 대중화·현대화·생활화를 위해 펴내는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와 만나는 유익한 잡지)
성연 스님의 2006 신사의 종경소리 | 나의 행자시집
특집 |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 2006 청정운동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지난 1996년과 1997년에 이어 2006년 다시 시작되는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불자들의 선행개척운동인 ‘청정운동’을 조명한다.
왜 다시 청정(淸淨)운동인가?
제1차 청정운동의 성과와 불교운동의 방향
2006 청정운동 이렇게 실천하자
특별기획 | 미국불교의 현황 속으로 3
한국불교는 미국에서 무엇으로 살아야 하나
미주 전방(前線) 40년이 지난 전방기의 한국불교가 미국 내 개척불교운동의 중심축이 되기 위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점검해보는 현지 취재기
1. 미국 동·서부지역 주요 한국사찰 탐방
2. 미국식에 맞는 한국불교·미국 내 한국사찰 명부
총법 스님의 말하는 재가불자가 알아야 할 불교교리 | 6 선의 기원과 간략한 역사
지상중계 | 미얀마 파옥 사야도가 지도하는 호품관 수행법
불교심리학 | 심리치료로서의 불교
열린불교, 열린경영 | ● 마음수련원 리포트
군법사 포교기 | 강원도 양구 노도부대 의사, 백태원 법사
한호를 읽고 떠나는 여행 | 어느 노부부의 들뜬사랑 이야기
buddhism & music | 마음으로 듣는 명상음악
문화기회 | 소설가 김중혁이 쓰는 바깥에서 만나는 신화와 불교
작은박물관을 찾아서 | 한국적수박물관
국제불교 신책 | 미국 하버드대학 임미 스님의 종교 뒤집어보기
“관암 먹고 종교를 버려보자”
해외통신 | 옥스퍼드에서 떠나는 편지
영국의 작은박물관, 옥스퍼드 두 박물관에서 문화의 힘을 느끼다
지리산 대안 스님에게 배우는 현대인의 건강 법상
나쁜한 불남을 위한 산야초 법식
건강에세이 |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불량 치유법
역물시대 수행열전 | 조선시대 변역 좌선으로 어둠을 밝힌 이들
생활 속의 불교생활 | 명색(名色), 본질이면서 겉보기인 그 요모함에 대하여
고전읽기의 즐거움 | 위문고 한가문 수행자, 범주사 고한(高閑) 대사
(별지) 하루에 읽어보는 테마여행 ● 서울의 옛다리
전화 02-719-2606 www.buddhistculture.co.kr